

6/19/16

설교 제목: 너희가 내 손안에 있느니라

전하는 이: 김순배 강도사

말씀: 예레미야 18:1-17

- (렘 18:1)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 (렘 18:2)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 주리라 하시기로
- (렘 18:3)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녹로로 일을 하는데
- (렘 18:4)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 (렘 18:5) 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 (렘 18:6)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 (렘 18:7)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절관주** 렘 1:10
- (렘 18:8)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절관주** 호 11:8, 욥 2:13
- (렘 18:9)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절관주** 렘 31:28, 암 9:11-15
- (렘 18:10)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 (렘 18:11)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 (렘 18:12)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 (렘 18:13)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누가 이러한 일을 들었는지 여러 나라 가운데 물어보라 처녀 이스라엘이 심히 가증한 일을 행하였도다 **절관주** 렘 2:10, 렘 5:30, 렘 14:17

(렘 18:14)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렘 18:15)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니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결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절관주** 렘 6:16, 사 57:14

(렘 18:16)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 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절관주** 시 22:7, 렘 48:27

(렘 18:17)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흠어 버리기를 동풍으로 함 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는 BC 627년부터 BC 580년경까지 약 40년 동안 남 유다를 향해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이 시기는 남 유다에게 참으로 격동기였습니다.

BC 622년 요시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선한 왕, BC 640 - BC 609) 성전 청소를 하다가 성전 깊숙히 쳐박혀 있던 율법서를 발견합니다.

그것을 읽은 요시야 왕은 그들이 하나님을 잘못 섬기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함께 성전을 재 정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리키는 등등의 성전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러나 이미 우상 숭배와 도덕적인 타락으로 물든 유다를 돌이키기에는 시간적으로 역량적으로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성전 개혁의 꿈을 다 이루지도 못한 채 BC 609년 요시야 왕은 애굽의 바로느고에 의해 살해 당합니다.

요시야의 뒤를 이어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르는데 그도 겨우 3개월 남짓 통치한 후 바로느고의 포로가 되어 애굽으로 끌려 갑니다.

그 뒤 여호와 김 왕이 애굽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때인 BC 605까지 애굽의 봉신으로 유다를 통치합니다.

애굽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후 애굽의 봉신이었던 유다의 여호와 김 왕은 이제 바벨론의 봉신이 되어 유다를 통치합니다.

그러나 그는 예레미아의 경고를 무시하고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다가 BC 597 년 여호와 긴에게 왕위를 내 주어야 했습니다.

뒤를 이은 여호와 긴 왕 또한 친 애굽 정책을 써 왕위에 오른지 고작 3 개월 되었을 때 바벨론에 잡혀가 폐위되고 바벨론에 의해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 역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 하자 바벨론은 BC 586 년 예루살렘을 세 번 째 침공하여 멸망시킵니다.

당시 유다 주변 정세를 보면 애굽, 앗수르, 바벨론이 각축을 벌리다가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앗수르가 몰락하고 비교적 신흥국이었던 바벨론이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애굽과 앗수르, 바벨론은 유다를 먹기위해 호시탐탐 엿보고 찢러 봅니다.

유대 왕들과 방백들은 살아 남기 위해 예전에 강국이었던 애굽과 손을 잡는 정책을 택합니다.

예레미아를 제외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 주실 것이라고 백성들의 귀에 듣기 좋은 예언들을 쏟아 냈습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오로지 예레미야만이 유다 백성들에게 바벨론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과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70 년을 살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런 예언을 하는 예레미야를 왕이나 정치인들이나 방백들, 백성들 모두가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말이더라도 모든 게 잘 될 거라고,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하는 당장 귀에 듣기 좋은 예언을 원합니다.

아무리 진실이라 해도 쓴 말은 외면하는 것이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온 나라가 지금이라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전심으로 구하여야 하는데 그들은 전혀 그럴 기미가 없습니다.

아니 백성들은 엉뚱하게 성전 불패론 즉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고만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의 상태는 돌아 보지 않고 성전이 있고 다윗 왕조에 대한 언약이 있어 예루살렘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친히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 조상들에게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이 번성하도록 하겠으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는 달리 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까?

예레미야의 가슴은 찢어질듯이 아팠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조국을 사랑한 애국자였습니다.

그는 멸망을 눈앞에 둔 조국을 생각하며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눈물로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물과 애원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조국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고 점점 더 멀어져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절망하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며 거기서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토기장이 집에 도착한 예레미야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빚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렘 18:3)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녹로로 일을 하는데

(렘 18:4)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런데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다가 도중에 그릇이 터지자 진흙을 다시 뭉쳐서 자기 의견에 좋은 다른 그릇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쳐다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렘 18:6)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다가 그릇이 터지자 자기 마음대로 그 진흙을 다시 뭉쳐 자신이 원하는 그릇을 만든 것 같이 나도 내 마음대로 나의 택한 뜻에 반하여 나가는 이스라엘 너희들을 뭉개 버리고 다시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하나님을 떠나 온갖 도덕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기대했지만 그들은 들포도를 맺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 극상품의 포도 나무를 심어 놓고 그 열매를 얼마나 기다리셨는가는 이사야 5 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사 5:2)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짚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께서서는 극상품의 열매를 기대하며 그것을 지킬 망대를 만들고 또 그것들을 수확할 날을 기대하며 술틀도 파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대와 달리 들포도를 맺었고 분노한 하나님은 포도원 담장을 허물어 짐승에게 먹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 우리가 맺기를 기대하는 것은 극상품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입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은 들포도를 맺는 것과 진배없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뭉개 버리고 원하는 그릇으로 다시 만든 것과 같이 기대했던 극상품의 포도대신 들포도를 맺는 우리에게 당신이 원래 했던 약속을 뭉개고 당신의 임의대로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렘 18:7)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렘 18:8)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렘 18:9)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렘 18:10)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심판하시려 계획하셨더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리고자 했던 재앙을 거두겠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내리로 한 복을 거두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렘 18:11)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백성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재앙이 아니고 경고입니다.

그 소리를 청종하지 않으면 재앙이 되지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더욱 강퍅해져만 갑니다.

(렘 18:12)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다고 합니다.

악한 마음이 완악한대로 행하겠다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두 사위들의 최후를 연상케 합니다.

내일 일도 모르는 인간의 계획과 힘을 의지하여 행한다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헛되게 들으면 안됩니다.

강박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렘 18:14)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레바논은 갈릴리 북쪽에 있는 산맥인데 그곳은 사시사철 눈이 쌓여 있어 차고 시원한 물이
끓이지 않고 흘러내렸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시고,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에 비유한 것입니다.

(렘 18:15) 무릇 내 백성은 나를 잊고 허무한 것에게 분향하거나와 이러한 것들은 그들로
그들의 길 곧 그 옛길에서 넘어지게 하며 결길 곧 닦지 아니한 길로 행하게 하여
옛길은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인도하신 구원의 길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다윗 등 선진들이 걸어간 생명의 길을, 결길은 죄의 길, 죽음의 길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옛길 생명의 길을 버리고 결길, 죄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요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일갈하십니다.

(렘 18:16) 그들의 땅으로 두려움과 영원한 웃음 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서 그의 머리를 흔들리라

(렘 18:17)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 앞에서 흠어 버리기를 동풍으로 함 같이 할 것이며
그들의 재난의 날에는 내가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총을 베풀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손안에 있는 진흙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극상품의 열매인 성령의 열매를 맺어 그 분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